

중국의 한식절과 금화(禁火) 풍속

한식(寒食)은 중국의 전통문화에서 불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절기이다. 이날은 불을 피워 밥을 지으면 안 되고, 하루 종일 찬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금연절(禁煙節) 또는 냉절(冷節)이라고도 부른다. 불 피우는 것을 왜 금지하고, 또 왜 찬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춘추시대 진나라(晉國)의 신하인 개지추(介之推)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란 설이 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진나라에서 내란이 일어나자 공자(公子)인 중이(重耳)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갔다. 개지추가 함께 유랑을 하면서 도중에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국을 끓여 중이의 배고픔을 해결하였다. 나중에 중이가 진나라의 왕(晉文公)이 되어 공을 세운 신하에게 작위와 상을 내렸는데, 그만 허벅지 살을 도려내 자신을 봉양한 개지추를 빼놓고 말았다. 이 일로 개지추는 산속에 들어가 은거를 하였다. 진문공은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 개지추를 찾아 관직을 주어 조정에 부르려고 하였으나 산속에 꼭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진문공은 산에 불을 질러 마지못해 나오게 하려고 하였으나 3일 동안이나 불이 타도 개지추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불이 꺼진 다음에야 사람들은 불에 타 죽은 개지추를 발견하였다.

전설은 바로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은 충신 개지추를 존경하고 그리워하기 때문에 매년 이날에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드는 것을 하지 않게 되었고, 점차 한식절로 굳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전설은 어떤 풍속에 대한 가장 감동적인 해석이지만, 흔히 건강부회이거나 어떤 풍속의 진정한 기원이 결코 아닐 수도 있다. 연구에 의하면, 문헌기록으로 볼 때 한식은 한(漢)과 위(魏) 시기에 개지추를 기념하여 생긴 절기이지만 진정한 기원은 중국 상고시대의 개화(改火) 풍속에 있다. 개화는 간단하게 말하면 원래 있던 불을 끄고 다시 새로운 불을 켜는 것을 말한다. 초기 인류는 우주만물이 모두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고, 불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불도 사람의 생명같이 생로병사의 신진대사를 거치기 때문에 불에도 저마다 다른 속성이 있어 새로운 불(新火)과 노쇠한 불(舊火)의 구분이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산활동도 불을 떠나 생각할 수 없어, 삶의 화복(禍福)과 불의 신구(新舊)를 연관시켜 새로운 불은 복을 가져오고 노쇠한 불은 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였다. 삶과 생산활동이 오랫동안 평안하고 흥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금화(禁火)와 취화(取火)의 의식을 거행하여 노쇠한 불은 도태시키고 새로운 불을 존재케 하였다.

이러한 풍속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근대 유럽에서 전승되던 부활절 불 축제가 바로 그 예다. 중국에선 이런 고대의 풍속을 개화라고 한다. 중국 상고시대 예제를 집대성한 『주례(周禮)』의 하관·사관(夏官·司爨)에는 “불에 관한 정령을 거행하는 것을 담당하여 사시(四時)에 나랏불(國火)을 바꾸어 때에 따라 발생하는 질병을 구제한다”(掌行火之政令, 四時變國火, 以救時疾)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오랜 개화 풍속의 의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화 풍속의 함의를 엿볼 수 있다.

한식에 금화를 하는 것이 개화 풍속의 잔존이라면, 금화는 반드시 출화(出火)를 전제로 한다. 『황금가지』는 유럽 전통사회에서 불을 제사(祭火)하는 풍속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초점은 새로운 불을 피우는 것에 있고, 이것이 화제(火祭)의 중점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에 상응하는 중국의 기록에는 한식 후에 다시 새로운 불을 피우는 의식을 찾기가 어렵다. 단지 아주 단편적으로 청명 즈음에 나온 버드나무 가지가 새로운 불의 표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어떤 연구자는 당나라 때 황실에서 봄에 개화를 할 때 버드나무 가지로 불을 피우는 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새로운 불로 바꾸는 풍속은 여하간 불을 금하는 한식처럼 유명하지 않다. 중국의 한식은 왜 불을 끄는 것을 유독 강조하게 되었는가? 설마 여기에 중국인의 불에 관한 특수한 사상이 나타나 있지는 않는가? 혹은 한식 금화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럼 한식 절기는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살펴보자. 연구에 의하면 중국 상고 시대의 개화(改火)는 주로 동짓날이나 입춘날 또는 삼월에 있었는데, 주(周)와 진(秦) 이후에 개화 시기가 점차 고정되기 시작하여 결국은 동지가 지나고 105일로 정착되었다. 이 변동은 그 당시의 방재(防災) 관념과 관계가 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별자리를 통해 사시(四時)의 변화를 인식하였고, 동시에 사람의 화복(禍福)을 해석하기도 하였다. 동지가 지나고 105일이 되면 28수(宿) 중의 '동방창룡(東方蒼龍)'이 목위(木位)에 이르고, 오행의 상생상극 원리에 따르면 목은 화를 낚으



불과 민속

● 중국의
한식절과
금화(禁火) 풍속

글

· 평지연춘(龐建春)
중국 북경사범대학
민속학 박사,
현 홍익대학
교양외국어학부
중국어 전임강사

번역

· 김호걸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로(木生火) 사람들은 이날에 화재가 발생하기 쉽다고 여겼다. 그리고 창룡칠수(蒼龍七宿) 중에 하나가 '심(心)' 또는 '대화(大火)' 라고 불리는데, 만약 대화가 목위에 이르면 불길기 더욱 거세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불을 금지함으로써 방재와 경계(警戒)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 해석은 문헌에도 근거가 있다. 『주례(周禮)』추관·사헌(秋官·司烜)에는 방화령(防火令)을 담당하는 관직이 있어 매년 봄 두 번째 달에 목탁(木鐸)을 흔들며 성곽을 돌고, 방화에 관한 법령을 다듬게 하였다. 이것을 볼 때 한식의 금화는 단순히 새로운 불을 켜기 위해 옛 불을 끄는 것만이 아니라 방재의 의미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금화의 방재기능은 자연히 화재와 연관이 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념 속에 있는 금화 풍속의 방재기능은 이뿐만 아니라 특수한 재해성 기상현상과 관계가 있다. 중국 산서성(山西省) 태원(太原)과 그 부근 지역은 문헌기록으로 볼 때 한식이 가장 유행했고 전형적이었던 지역이다. 많은 문헌들이 이 지역 한식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그중에서 한식을 금지하는 기록은 이곳 사람들이 보내는 한식의 진정한 신앙적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삼국시대 위(魏)의 조조(曹操)는 『명벌령(明罰令)』을 반포하여 태원과 상당(上黨)·서하(西河)·안문(雁門) 등 여러 지역의 한식을 금지하면서 “이곳 사람들이 한식을 지키지 않으면 우박의 재해를 입을 것이라는 관념이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한식을 지키지 않는데 어찌하여 재해를 입지 않을 수 있나!”고 제기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즉 한 무제(武帝) 때 발생한 우박 피해가 한식과 관계가 있느냐고 풍자하였다. 조조의 “한식은 낡은 풍속”이라는 풍자는 한식의 신앙 중 우박의 재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후에 『진서(晉書)』에도 한식 금지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있다. 후조(後趙) 황제 석륵(石勒)이 도읍을 건립한 후 한식을 금지시킨 적이 있다. 그런데 알 수 없게도 그 다음해에 이 지역이 우박을 맞았다. 이 재해의 결과는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식을 더욱 굳게 믿게 하였다. 불과 기상재해의 연관은 결코 중국의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유럽의 고대 부활절의 불 축제의 마법 같은 기능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례로 독일의 산촌 지역 사람들이 사순절에 거행하는 불 축제에서는 불이 가는 곳의 농경지가 우박과 비바람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믿었다.

프레이저는 『황금가지』에서 유럽의 고대 불 축제의 함의를 두 가지로 보았다. 하나는 ‘태양 설’로서 사람들이 땅에 불을 피우는 것은 하늘의 광원(光源)과 열원(熱源)을 모방함으로써 사

람과 가축과 식물이 햇빛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정화설'로서 모닥불이나 켓불이 사람들의 생산과 생활에 장애를 주는 재해나 불행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프레이저는 정화설이 근본적으로는 태양설에서 기원하지만, 이러한 풍속의 전승에 있어 현실과 더욱 부합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여러 사례를 볼 때, 사람들이 불을 통해 제거하고자 하는 것은 질병과 재해이지 요괴나 귀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중국 한식절의 금화는 실제로는 정화설의 표현이다. 우선 한식의 금화는 새로운 불을 취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불을 피우는 것은 이미 기능을 잃어버린 옛 불을 대체함으로써 때에 따라 발생하는 역질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불을 금하는 것은 화재를 방지하려는 뜻이 있다. 다만 민속에서는 특정 기상재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더 부여하고 있다. 불을 피워 기상재해를 방지하는 것과 불을 금지해서 기상재해를 피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지만, 이것은 사람들의 불과 기상재해의 관계에 관한 특수한 인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한식은 중국에서 방재(防災)의 의미를 지닌 오랜 금화(禁火) 절기이다. 연구자들은 한식이 한대(漢代)에, 그리고 태원(太原)에서 기원한다고 말한다. 한대와 위진 시기에 태원과 상당 등의 지역에 전래되고, 육조(六朝) 이후에 전국적인 절기가 되며, 당송대에는 정점에 이르러 국가의 중요한 절기 중의 하나가 된다. 원대 이후에는 점차로 쇠퇴하게 되는데, 이것은 몽고인들이 중원에 들어와 한족의 풍속을 바꾸려는 국가정책과 관계가 있다. 한식은 점점 이름만 있지 실체는 없는 절기가 되었고, 본래 한식의 풍속이었던 성묘 같은 풍속이 점차 청명절에 포함되었다. 청명절이 한식을 겸하게 된 이유는 많다. 그중에서 냉식(冷食)과 금화(禁火)로 대표되는 한식의 풍속은 방재(防災)가 중점되었고 금기(禁忌)가 많았다. 이것과 청명절의 답청(踏青)과 같이 적극적으로 시기(時氣)에 순응하는 행위와 비교할 때, 한식은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경외를 더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한식의 금화와 냉식이 결합함으로써 사람들은 행동에서만 금기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체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한위(漢魏) 시기에 행해진 한식에 대한 금지령은 대부분 냉식 때문에 내려졌다. 왜냐하면 아직은 추위가 남아있는 봄철에 냉식을 함으로써 노약자와 어린이 및 병자들이 견디기 힘들었을 것은 당연하다. 이로 볼 때 봄철에 냉식을 하는 불편함과, 인류의 자연재해에 대한 해결 능력의 증대가 한식 풍속의 전승을 약화시킨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㉞

